

제35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7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오전 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방금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간사께서 회의장에 오셔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윤관석 간사님과 유성엽 간사님 두 분이 의견을 모으신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이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상정된 안건은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처리해도 그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서 동의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회의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모아서 제게 전달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말씀하시지요.

○정춘숙 위원 정춘숙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 막지 못해서 사과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예산 심의하는 모든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다 참여했습니다.

예결 소위·소소위까지 다 참여하셨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내가 이런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통과시켰다 해서 플래카드를 다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예산 통과를 이유로 이렇게 회의장에 안 나타나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은 말도 안되고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이 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받아 주고 우리가 계속 양해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초선의 원이지만, 예산이 통과되던 그때도 저희가 10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본인들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와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난장판을 만드는 것 보면서 정말 국민들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의결정족수가 되고 그리고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춘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주민 위원 오늘 올라온 안건은 이미 소위에서 다 합의가 돼서 올라온 것이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진행하고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의사 안건에 올라온 것들은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성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유성엽 위원 국민의당의 유성엽 위원입니다.

방금 정춘숙 위원님·박주민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 저도 두 분 말씀 내용에 또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님과 간사 간 회의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그동안 소위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도, 정기국회 내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불참 통보를 하고 나간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12월에 임시회가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 정개특위의 전체회의라든지 또 나머지 소위 일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보류하고, 의결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혹

시 앞으로 우리 정개특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몇 분 수렴을 한 다음에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혜영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관석 위원 방금 유성엽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9월에 정개특위가 사실상 구성은 돼 가지고 그때 소위 구성까지 해서 한참 활동하다 또 국감 때문에 건너뛰고 11월 들어와서 조금 하다가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은 비교적 비쟁점 법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족수만 되면 의결해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특위 관련해서는 이미 각 방을 통해서 전달 드렸는데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12월까지 뽁뽁하게 지금 1소위·2소위 또는 전체회의를 잡아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 것 과정까지를 종합해서 오늘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정기국회 내에 적어도 우리 정개특위가 입법권까지 가진 특위로서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결될 것들을 조금 미뤄서, 또 소위 활동까지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종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특위의 의결을 미루는 게 향후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의결은 이후로 미루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위원장 원혜영 심상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심상정 위원 오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간사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기왕에 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정개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개특위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늘 시작하면 우선 시급한 것, 실무적인 것, 쟁점 없는 것 가지고 정개특위의 상당시간을 다 소비를 합니다. 정작 정개특위가 구성된 핵심 취지, 그 의제는 막판에 가서 ‘지금 와서 그 문제를 건드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저는 이번의 정개특위도 그런 기시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의 상황은 다른 때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촛불을 거쳤고 정권 교체를 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기되는…… 또 개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사실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논의를 하라고 구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일당이 독식하는 시·도의회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일당이 독식하는 시·도의회를 개선하지 않고 또 그게 가능치 않다면 지방분권 개헌을 말씀하지 마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하면 누구한테 권력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전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책임을 미루기에는 저는 지방선거제도 또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의 과제가 매우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계시고 여기 국민의당도 계시고 민주당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 있게 이 사안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 교환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우리가 열 올리는 것 이상으로 그런 정치 안의 적폐, 그게 바로 민의를 왜곡하는 국회의 정치구조고 그것을 뒷받침해 왔던 선거제도 그것이 적폐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저는 늘 너무나 잦고 빠른 변화가 진짜 필요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민주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 또 오늘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바른당, 자유한국당…… 아니면 아닌 대로, 그러면 나머지 당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할 일을 못한다, 이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거제도가 자유한국당, 다 합의하에 처리돼야 하지만 제가 만난 자유한국당의 상당 부분의 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그러면서 또 설득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의지가 있나, 어디까지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나 이 점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개특위 무용론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간사님들이 합의한 사항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개특위에서 다루어질 가장 중심 화제가 결국은 국회의원선거제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광역과 기초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고, 자유한국당 외 다른 당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개특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집중하시느라고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이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고, 일단 이번에 예산국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의 시기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예산국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는, 물론 내용적으로 정의당이나 바른정당도 그 취지에 찬성한다라고 보지만 적어도 교섭단체간의 논의에서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예산안에 대한 부대 합의 성격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곧바로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1소위·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수 있지만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빠지고 혹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에 복귀하는 것을 언제까지 망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전체회의는 원혜영 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정족수가 충족이 되니까 제1소위·제2소위를 하지 말고 그냥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3당 간 혹은 4당 간에 그런 합의를,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3당 혹은 4당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정개특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 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서 혹시 내년 1월에 정개특위가 연장이 되든 연장이 되지 않든간에 우리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주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인 만큼 의결은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만 양당 간사님들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치개혁특위의 성격상 모든 정치세력의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다음번 회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그때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기대하면서 상정된 의안 의결은 미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논의가 실효성 있게 모아질 수 있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고 꼭 위원회의 공식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좀 더 압축적으로 또 공유되는 어떤 정보와 판단에 기반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런 노력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안을 저도 좀 강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공식 회의가 아닌 다른 자리를 통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한정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주현 심상정 원혜영 유성엽
윤관석 정춘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전문위원 천우정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변경전	변경후	사유	연월일
정양석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변경	2017. 11. 9.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용주	박주현	국민의당	2017. 9. 28.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3. 이종구·정병국·정양석·이상돈·정운천·홍철호·하태경·오신환·김무성·주호영·이언주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

(2017. 9. 18. 박완수·정종섭·박덕흠·김성원·곽상도·이종배·이은재·곽대훈·최연혜·박맹우 의원 발의)

9월 1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1. 박인숙·정성호·김세연·이명수·이종구·정양석·오신환·유승민·김철민·정병국 의원 발의)

9월 22일 회부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2. 박대출·유민봉·김정재·정갑윤·정태욱·박찬우·윤영석·김성찬·이우현·염동열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7. 9. 22. 김성찬·강석호·윤영석·김정재·박순자·윤상직·송석준·신보라·김성태·박찬우·김종석·김한표·이채익·함진규·나경원·이장우·이완영·김재경·김학용·장제원·이만희·권석창·위성곤·김철민·안상수·김한정·김현권·김종희·정인화·이개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2. 김성찬·강석호·김정재·윤영석·박순자·송석준·윤상직·신보라·김성태·박찬우·김종석·김한표·이채익·함진규·나경원·이장우·이완영·김재경·김학용·장제원·이만희·권석창·위성곤·김철민·안상수·김한정·김현권·김종희·정인화·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5. 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성일종·박인숙·유승민·이명수·이종구·윤영석·윤한홍·정양석·정운천·주호영·하태경·홍문표 의원 발의)

9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9. 박찬우·김선동·김성원·김태흠·박덕흠·성일종·이명수·이은권·정유섭·홍문표 의원 발의)

10월 1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11. 윤후덕·노웅래·김병욱·박정·이정미·임종성·소병훈·박주민·이해찬·김정우·신창현·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11. 오신환·유의동·김세연·강병원·박인숙·강길부·김수민·최도자·지상욱·

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3. 김영호·소병훈·인재근·표창원·민홍철·백재현·기동민·정춘숙·김영진·전혜숙 의원 발의)

11월 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9. 유민봉·박성중·문진국·이명수·강석호·장제원·金成泰·이은권·곽대훈·홍문표 의원 발의)

11월 1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4. 박덕흠·김명연·함진규·김현아·김성찬·변재일·신보라·김태흠·정운천·박맹우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5. 박덕흠·김명연·함진규·김현아·김성찬·변재일·신보라·김태흠·정운천·박맹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5. 함진규·박덕흠·김성태·이우현·임이자·조경태·박대출·강석진·이종배·박순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 발의)

(2017. 11. 16. 김부겸·김영호·김철민·임종성·김종대·안규백·고용진·기동민·윤관석·민홍철·박정·김상희·김성수·김정우·서형수·소병훈 의원 발의)

11월 17일 회부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7. 7. 4. 이해찬·최경환(국)·신창현·민홍철·강창일·박남춘·김정우·이원욱·조승래·김경협·윤관석·강훈식·박용진·원혜영·진선미·이재정·김관영·추미애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7. 9. 25. 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노회찬·추혜선·김상희·김종훈·윤종오·채이배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오세정·손금주·위성곤·신용현·김삼화·김경진·천정배·최명길·이찬열·김성식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9. 25. 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노회찬·추혜선·김상희·김종훈·윤종오·채이배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2017. 10. 25. 위성곤·황주홍·김현권·김철민·홍문표·이개호·이철희·강창일·김영진·이찬열·신창현·채이배·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8일 회부됨

○청원 회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3.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외 2인 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3.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충재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9월 1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19. 우리미래 공동대표 이성윤 외 7인 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19일 회부됨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

(2017. 9. 20.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김낙경 외 16인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2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5. 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안동섭으로 부터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5. 정치개혁 부산행동 고희석 외 7인 으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목 외 3인 으로부터 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외 3인 으로부터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9. 26.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문창기 외 13인으로부터 이상민·김광수·변재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9월 2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당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 2017. 9. 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외 3인으로부터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9월 2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10. 17.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권수현 외 3인으로부터 남인순·권미혁·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17일 회부됨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11. 22. 광노현 외 2인으로부터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3일 회부됨